

모자보건  
가족계획

A. I. D. 초청으로

## 短期訓練에 다녀와서

<수도의예간호학교장> 최 정 자

美國 A.I.D.의 招請을 받고 母子保健 및 家族計劃에 關한 3個月間의 訪美訓練을 받고 그 內容과 經驗을 會員 여러분과 나누고자 한다.

主로 看護教育을 擔當한 九個國에서 모여든 指導者 16名이 6月 8日 Washington D.C.의 International Development Center 에 모여 10日間 美國에 대한 一般知識 즉 美國의 宗教, 教育, 政治, 經濟, 社會, 保健, 歷史, 地理, 등에 對한 各大學 教授들의 特別講義를 받고 이들은 短時日 內에 効果的으로 이세 自己 나라를 紹介하였다. Schedule 은 빈틈 없었고 各 group 마다 leader 가 있어 모든 問題를 相談 또는 指導하여 주었다.

이 Orientation course 를 거친 世界各國에서 모인 A.I.D. Participant 들은 반드시 이 課程을 거쳐서 각기 自己분야의 training 또는 視察로 들어간다. 이 Orientation course 가 끝난후 우리 一行은 南美에 Georgia州 Atlanta city 의 郊外에 자리잡은 Emory University 의 Nursing Dept. 에서 8週 동안의 正式 course 가 始作 되었다.

Short course training 이라고 해

서인지 每月 曜日부터 金曜日까지 各 나라에서 모인 人種 展示會도 가졌고 知識展示會도 가졌으며 이로 因하여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. 먼저 말한 바와 같이 母子保健 및 家族計劃에 對한 것이니만큼 먼저 어머니에 對한 健康管理를 爲始해서 애기에 關한 健康管理 및 性教育에 이르기까지 그리고는 家族計劃에 關한 徹底하면서 計劃된, 即 家族中心의 家庭에 關한 case work 등을 通하여 教室에서의 講義 또 各機關에 對한 視察 및 case assignment 를 받음으로 medical team member 들과 coordinator 로서의 看護員 位置에서 機能에 對한 知識을 넣어 주었다. 이 course 를 받도록 하는데 AID 에서는 한 사람의 Participant 에 對하여 \$600 式이나 授業料를 支拂했고 이 course 에 動員된 教授들 數만도 40 餘名이나 되었으며 總延時間數만도 約 200 時間의 講義時間을 가졌다.

每 金曜日 마다 그週에 끝난 lecture 에 對하여 Seminar 를 가졌고 各 나라마다 꼭 自己나라에 關한 소개를 하도록 배당된 時間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全的으로 教育시키는 것보다 知識의 exchange 라고 보는 것

이 더 적당한 말이라 하겠다. 또한 이 8週 동안에 두 group으로 나누어 所謂 interest group이라稱하면서 한 group에서는 continuity of nursing care라는 題目으로, 또 한 group은 inservice training이라는 題目으로 討議했는데 이것은 正式 print로 하여 곧 우리들 손에 들어올 것이며 오는대로 會員 여러분께도 알릴 계획이다.

Evening 時間은 課外活動을 擔當한 Miss Procter라는 분의 주선으로 野外극장의 opera 등을 감상할 수 있었고 Emory University, Faculty member들의 誠意에는 感謝하지 않을 수 없었다.

Emory University를 거쳐 一行은 New York의 코오넬 University Hospital 看護員 寮宿舎에서 一週동안 보고 들을 수 있는 機會를 가졌는데 특히 興味있는 것은 Rooming-in System으로서 産母가 아기를 分擔하면 아기 房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 옆에 있으면서 아기를 自己 힘으로 돌볼 수 있도록 看護員이 teaching하고 있었다.

어머니는 아기 목욕을 시키고 nurse는 이것을 보고 서 있었으며 面會時間에 아버지가 訪問하던 그 時間에 아기를 돌보고 배우고 시험해 보는 등 一週동안 病院에 있으면서 가족 계획에 關한 지식을 넣어 주어 自身 들로 하여금 自己 家庭을 計劃할 수 있는 能力을 길러 주는 것들은 매우

재미나는 일이었다.

New York에서 떠나 Ohio의 Acron Canton에 Atood lake 란 곳에 자리잡고 있는 Communication Center에 우리 一行은 갔다. 이 Center는 Michigan University에 屬한 기관으로서 A.I.D. Participant들이 美國을 떠날때 들리는 곳으로 意思소통에 關한 Seminar를 一週동안 하는데 22個國에서 모여든 男女約 60名이 머물러 있었다.

처음날 evening에 we and you communication으로 부터 始作한 이 Seminar는 우리 A.I.D Participant들이 앞으로 各己 自己나라에 가면 이번 course에서 얻은 知識을 어떻게 活用할 것인가? 에 대하여 技術的, 科學的인 各方面에서 即 그 기술을 視聽覺 case assignment 或은 action 등을 통하여 배우게 했고 또한 가르쳐 주었다.

이렇게 해서 도합 12週는 꿈 같이 지나 우리 韓國의 참여자 3名은 9月初에 無事히 귀국하게 된 것이다.

美國에서의 12週를 통하여 절실히 느낀 것은 언젠가, 어느 때고 new-idea에 對하여 예민하다는 結果 世界를 알려고 努力하는 大國으로서의 自負가 大端한 것이라는 점이었다.

끝으로 우리에게 이토록 貴한 機會를 마련해 준 文教部, USOM 保社部 및 經濟企劃院에 甚深한 謝意를 表하며 12週 동안 우리를 도와준 A.I.D.關係者들에게 感謝드리는 바이다.